

근대사 품은 '광주 남구' 2017 관광도시 선정

3년간 50억원 투입...콘텐츠 개발·숙박시설 개선

U대회 등 시너지 기대...강원도 강릉·경북 고령도 선정

광주시 남구 양림동은 100년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호남 근·현대 문화의 1번지다. 몇 해전부터는 예술인들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양림동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옛것과 현대가 공존하는 양림동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있는 남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하는 관광도시로 육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9일

“공모 과정을 거쳐 광주시 남구를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국비(25억원)와 시비 등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콘텐츠 및 상품을 개발하고 숙박 등 환경·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문체부가 매년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 3곳을 선정해 해당 도시를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천시, 무주군, 통영시를 지정했으며, 올해는 남구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 경북 고령군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향후 1년간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통해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도시별로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관광도시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구는 양림동을 중심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동구 등 인근 생활행복권과 연계하는 ‘정(情) 투어리즘’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근·현대 건축물과 양림교회 오웬 기념관·우일 선교사사

사택 등 기록과 문화유적, 이장우 가족을 비롯한 전통문화재, 사직공원, 광주공원 등 콘텐츠가 있는 양림동 일대를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일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차유전수관, 포충사, 빛고을공예창작촌 등이 있는 대촌지역, 영회재작 및 활영이 가능한 광주CGI센터, 승촌보, 빛고을노인건강터 등 인프라는 남구를 복합적인 관광도시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3월 개통하는 KTX 호남선과 ‘2015 광주 하계 U대회’, ‘2015 국제대자이언연맹총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인기자 kki@



양림교회 오웬 기념관



우일선 선교사 사택



커티스 메모리얼 홀

옛말 되어가는 ‘食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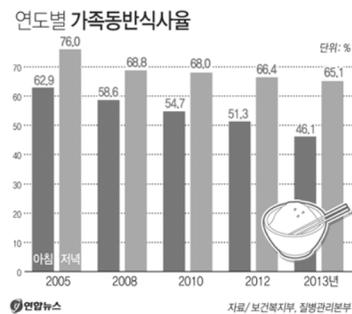
가족 함께 식사 아침 46%·저녁 65%...갈수록 줄어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식구(食口)’의 의미가 갈수록 열어지고 있다. 점심은 물론 아침과 저녁식사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3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세 이상 남녀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46.1%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침 가족동반식사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05년 62.9%에서 2008년 54.7%, 2010년 54.7%, 2012년 51.3%로 줄곧 낮아졌다. 2013년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섰다.

저녁 가족동반식사율도 2005년 76.0%, 2008년 68.8%, 2010년 68.0%에 이어 2013년 65.1%로 매년 줄었다. 조사 대상자 3명 중 1명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대개 학교나 직장에 있는 시간인 점심식사 때의 동반식사는 14.4%로 가장 낮았다. 이 수치 역시 2005년 21.6%



연도별 가족동반식사율 (단위: %)

자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서 점차 줄어들었다.

도시에 살수록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동(洞) 지역의 아침·점심·저녁 가족동반식사율은 각각 44.4%, 14.3%, 63.8%로, 읍면 지역의 가족동반식사율 55.1%, 23.5%, 67.1%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점심 식사 시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3~18세의 가족동반식사율이 한자릿대로 가장 낮았고, 아침이나 저녁 식사는 20대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대의 경우 대학 진학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병사 상해보험 첫 도입

복무중 사망사고시 1억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원을 보장한다”며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심금융 차단’

금감원 특별반 운영...표 얻으려 높은 이자 제공등 단속

오는 3월11일 광주 전남 198곳을 비롯해 전국 1300여개 농·수·축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선거과열에 따른 금융사고 차단에 나섰다.

19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업·수산업·산림 협동조합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과도한 배당 등 불법·위규 사항을 일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동안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자산건전성 부당(착오) 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평가 미실시, 미수수의 과대계상, 미지급 비용 과소계상 등 결산분석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각 중앙회는 이에 따라 선거종료까지

특별점검반을 설치 운영하면서 이번 주부터 감사인력을 파견,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위규가 적발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경찰, 중앙선관위 등에 신고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선심을 사기 위해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거나 이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분석결산 등으로 빼돌린 조합 돈을 선거비용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광주와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19일 현재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조치된 사례가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5건 등 20건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은 상태에서 아직 심각한 금융사고가

신고된 사례는 없지만 과거 전례로 볼 때 선거구가 많은 올해는 선거과열 가능성이 한층 크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선거후에도 조합별로 여수신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에 조합장 징계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조합도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198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는 농·축협 16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17곳, 전남에서는 농·축협 145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모두 18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는 광주·전남을 합쳐 47만명이 넘는 정량이며 입후보자는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대강, 水公 난색 불구 줄속 추진”

감사원 “사업방식 변경, 3일만에 처리”

4대강 사업이 사업방식 결정부터 사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줄속으로 추진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원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이 상세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기업 자체사업에 부분적인 재정사업을 보태는 방식으로 변경된 결과 정부와 공기업 모두가 부담으로 귀결됐다.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공은 이후 불과 3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사

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치수사업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 대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업성·경제성·재원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은 재원분담과 손실보전 측면에서도 하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4대강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으며,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확실하지 않고, 지원기간과 절차, 주체 등도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 실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임동 방면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부동산 최고 실무 전문가 김영표 대표의 확실하게 성공하는 부동산 성공투자 비법!!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1. 21(수)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 / 의 / 내 / 용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투자처 매물분석 및 공개
2.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3.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4. 부동산 취사(取捨) 선택전략 - 돈되는 부동산 선택요령 10계명

1부 김하현 교수 목포대학교 법학박사
대동대학교 경영학 박사
공인중개사 총연맹 중앙위원

2부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컬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사 파견 업무

경의 스피치를 배워서 인생을 바꿔주세요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진화 문이화하면 지혜만 안다면을 우송하여 드립니다.